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8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다함께
-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힘없고 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 간구합니다. 추석명절 연휴에 때 아닌 폭우를 만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할 때 한숨과 신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조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합심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비구를 걷히고 맑은 하늘 드러나듯 수심 걷히고 밝은 웃음 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 청년 예수의 정신이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주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작고 연약한 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주십시오.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 요14:27 ..... 인도자
- ♣ 교 독 문 ..... 97. 청년주일 ..... 다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 대표기도 ..... I. 권미정 집사 II. 이민철 청년
- 응 답 송 ..... 참빛찬양대
- 찬 양 ..... 575(통302). 주님께 귀한 것 드려 ..... 다함께
- 성경봉독 ..... I. 요15:1-10 ..... 천승호 학생  
 ..... II. 눅10:1-6 ..... 강미선 청년
- 찬 양 ..... 참빛찬양대
- 말 씬 ..... I. 직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이성운전도사  
 ..... II. 가거라, 청년들이 ..... 김기석 목사

- 찬 양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브라스밴드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사십시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핑계를 대며 가야할 길을 가지 않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다시 한 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가야할 곳 바로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되새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말씀 : 김기석 목사	율기 / 이성운 전도사
기도 : 장원호 권사	곽권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박소진 선생	조윤경 학생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오자영 집사

9월	영접위원	김인걸 권혁순 홍순구 박혜경 안홍숙 권미정
	헌금위원	윤석철 안홍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소속감 (1)

... 소속감은 우리의 독립심을 키우고 내적인 자유와 성숙을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때,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고립시키기도 하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소속감에도 함정은 있기 마련이다.

자신을 보호해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집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괜찮은 사람임을 그 집단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때로는 자신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좋은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나는 종교나 문화가 인류분쟁의 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류분쟁의 뿌리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기 위해 종교와 문화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 집단이 다른 집단을 공격할 때 몽둥이로 쓸만한 것이 종교나 문화 말고 다른 것이 있었다면 분명 그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 집단은 소속에 대한 욕구에 의해 생겨났다. 그러나 한 집단이 자신을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게 생각할 때 폐쇄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 나는 소속감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때 엄청난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인류에 속해 있다. 우리는 어느 특정한 가계(家繼)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으나 이 지구 위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우리 자신을 다른 집단에게 오픈해야 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고 그들이 답례로 주는 것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1986년, 라르슈 공동체는 베다니에 작은 공동체를 세웠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서안(西岸)지구에 있는 마을이다. 그 공동체는 팔레스타인 무슬림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었다. 우리의 이웃들은 모두 무슬림이었다. 우리 집의 주인 알리와 파트마도 무슬림이었는데 그들은 집 위층에 살면서 우리를 참 편하게 대해 주었다. 그곳 공동체의 리더인 마리 앙투아네트와 캐시는 룰라와 가디르라는 두 명의 젊은 여성과 그 지역의 지적 장애인 몇 명을 공동체로 받아들였다.

그 공동체를 방문할 때마다 가디르의 아름다움에 매료당한다. 그녀는 뇌성마비로 말을 할 수 없지만 미소와 반짝이는 눈동자로 나를 환영해 준다.

그녀는 몸을 통해 아름답게 “말한다.”

… 우리 인류는 근본적으로는 같다. 우리 모두는 깨어진 인간성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마음과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한다. 우리 모두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나는 룰라와 가디르를 통하여 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힘은 우리 모두가 종교와 문화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 베다니 공동체를 방문하는 동안 자주 예루살렘에 갔다. 그곳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당신들 위험하지 않소?”라고 물었다. 우리의 팔레스타인 친구들 역시 우리가 유대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의 의복에 가려진 사람의 아름다움을 둘 다 못 보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집단을 우리의 두려움과 선입견에 따라 판단한다.

1970년대 오타와에서 보낸 한 주간이 생각난다. 거기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는 일을 도왔다. 전과자, 범법자, 교도관, 경찰, 교도소 사목, 교도소장, 심리학자 등 여러 집단이 참여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함께 잤다. 그 누구도 자신이 속한 집단을 나타내는 이름표나 표식을 달지 않았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 함께할 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정할 만한 아무런 “표식”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는 또한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될 때 사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작은 본보기였다.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망상에 빠질 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진다. 억압은 그렇게 발생한다. 아프리카의 주교는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그곳에 있는 이슬람사원보다 더 큰 성당을 세웠다고 했다.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더 좋고, 더 힘 있는 종교임을 증명하기 위해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집단 주위에 장벽을 둘러치고 우리의 확실성을 키워나간다. 선입견은 그 장벽을 따라 커져간다. …

## 그 쇳물은 쓰지 마라

광온(狂濫)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적 얼굴 흠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새끼 얼굴 한번 만져 보자 하게.

(얼마 전 당진 용광로 사고로 숨진 청년의 죽음을 애도한 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경연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곽혜자 박영희 박지인  
오자영 원인해 김종락 박영신 정한구 박영신 홍순구 안홍숙 장원호  
박성희 안보혜 무명

### 월정헌금:

김남중 오복순 김순자 김윤정 박범희 박미영 이유선 방극숙 이정은  
이현순 황의일 이현숙 유지은 정완수 김재광 박석희 조항미 구명자  
윤성희 이봉옥 류건형 이주은 무명

### 감사헌금:

장미란 조현권 박아영 배부례 문희창 박시내 권미숙 조관행 홍선희  
유상진 유은정 박사라 김 극 무명

### 녹색공헌금:

이순정 이재문 장영숙 한지혜 강미선 유상진 강순배 윤석철

### 생일감사헌금:

박병구 김정애 박성희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정두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심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심	정복순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이명희	김진경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심	안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심	오정숙
시온	박효선	허정윤	심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심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심	안홍숙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심	김희우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심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심	박미영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심	정현선

##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청년주일** :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시대의 그릇된 조류를 따르는 청년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청년이 되십시오.
2. **임원회** : 예배 후 임원회가 열립니다.
3. **9월 체육행사** :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9월 체육행사는 축구입니다. 오늘 오후 4시 한강 뚝섬 축구장에서 시작합니다.
4. **자전거타기** :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이 서울연회 주관으로 27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원효대교 남단 자전거 도로에서 열립니다.
5. **세계성찬주일** : 다음 주일(10월 3일)은 세계성찬주일을 맞아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6. **신앙실천** : 가을별이 좋습니다. 하루 10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 바라기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영글어갈 것입니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다음 주 : 베들레헴 속)

\* 설거지 봉사 : 최경미 이수정 최재욱 (다음 주 : 박시내 이성범 김재흥)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